連載 栽培教室

'91新規會員을 爲하여

약 = 작 (芍藥)

1、**학명** : 적작약 Paeonia albiflora var' typica Huth。백작약 Paeonia Japonica Miyabe et

2、**과명** : 작약과 Paeoniaceae

3、**성분** : Paeoniflorin' Sucrose' Paeonine

4、**용도** : 진경、진통、수렴、수통、복통、적리、지한、조경

5、**약용부위** : 근(根)

6、**재배법**

가、적지

・기후 : 우리나라 전역에서 재배할 수 있다。그러나 중부이남 지방이 좋다。

・토질 : 표토가 깊고 비옥하며 배수가 잘되는 사질양토나 반점질양토가 좋다。

나、품종 : 식물학상 백작약과 적작약으로 분류한다。

◇백작약=뿌리가 굵으며 짧고 색깔은 백색이다。향내가 적작약에 비하여 많이 난다。야생시는 산중턱에 주로 북쪽으로 바위틈이나 나무사이에서 자생하는것이 보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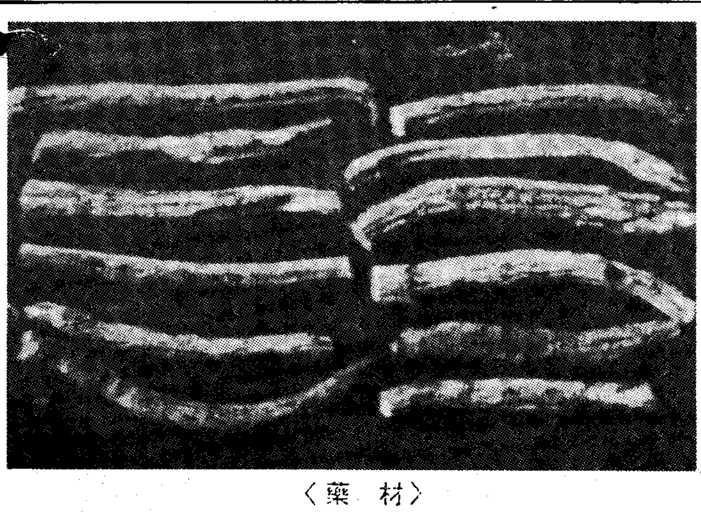
◇적작약=뿌리가 가늘고 길게 쭉쭉 뻗으며 색깔은 자색이다。백작약에 비하며 향기가 적으며 야생시에는 주로 산정상에 양지바른 동남쪽에서 자생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상과 같이 백작약과 적작약을 구분할 수 있으나 최근들어 우리가 정원이나 재배하는 작약은 대부분이 백작약이다。

다、번식 : 종자 및 분주법으로 한다。

・종자번식 : 시일이 오래 걸리므로 속성인 분주재배법을 선택해야 한다。

・분주번식 : 분주시기는 9월중순~10월하순 사이에 작약의 포기를 완전히 캐낸 다음 뿌리를 잘라서 가공하여 약재로 사용하고 윗부분만 노두 한구루에 건실한 눈 2~3개를 붙여서 쪼갠다。자를때 세근을 붙여서는 안된다。세근을 붙여 놓으면 신근이 생기지 않고 세근만 자라기 때문에 활착이 지연된다。



〈藥 材〉

라、재배요점

・분주정식 : 분주는 정식하기 15일전에 퇴비、용성인비 복합비료 등을 충분히 살포하고 갈아 엎어 두었다가 15일이 되면 다시 밭을 갈아 50㎝정도(고구마 두둑과 비슷하게)의 두둑을 짓고 약간 깊게 흙을 덮어 주고 월동을 위하여 두엄이나 볏짚을 덮어 준다。3백평당(10a)노두소요는 4천8백주가 소요된다。

7、**시비 및 관리**

・이듬해 봄이 되면 싹이 나오는데 작약의 뿌리가 다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김을 매어 준다。

・봄에 연한 싹눈이 나오면서부터 장마가 지거나 가물면 줄기에 흑갈색 무늬가 생기며 고사하기 쉽다。이때는 소석회를 줄기에 뿌려 준다。

・심은 이듬해 봄에는 심을때 비료를 주었음으로 추비를 하지 않고 8~9월 중순 사이에 퇴비를 충분히 덮어 준다。(돼지 두엄이나 잘 썩은 계분 등)

・2~3년은 언제라도 퇴비、복합비료、용성인비 등을 추비하는데 음력 7월 처서 시기에 하는 것이 좋다。

8、**수확 및 조제**

・수확시기는 4년근으로 수확하는 것이 좋으며 9월중순~10월하순경 캐서 뿌리 부분만 잘라 물에 씻어 겉질을 벗겨 건조한다。

・거피는 기계에 넣어서 거피하거나 대나무칼로 거피하며 건조는 건조장에서 60%건조후 양건하는 것이 색깔도 좋고 양질을 만들수가 있다。수확은 3백평당(10a) 생근 3천kg(4천8백근) 건근 1천kg(1천6백근)정도 된다。

※유의할 점

・발아후 김매기할때 뿌리를 건들지 않게 한다。

・가물거나 장마시에는 줄기에 흑갈색 무늬가 발생했나 관찰하여 소석회나 석회 보르도액을 살포한다。

・식재후 4년에 수확함으로 밑거름을 많이 주고 웃거름도 성장 과정에 따라 시비한다。

・건조장에서 건조시키는 60%정도만 건조시키고 양건해야 색깔이 좋아진다。

自然生 採取 (연재)

출 = 창 (蒼朮)

과 명 : 국화과

속 명 : 삽주뿌리

약용부 : 근경

1、**기본**

전국에 분포하며 잡복 등 사이에 자생하는 다년생 풀로서 뿌리에 특수한 향기가 있다。

2、**생장적지**

낮은산이나 평지의 잡나무 숲속등이 적지이다。

3、**특징**

줄기는 가늘고 곧고 높이가 1m 내외이고 아래부분의 잎은 3~5매로 뻗어졌거나 또는 3~5조각의 날개 모양의 겹엽을 이룬것과 단엽을 이룬 두 가지가 있다。잎은 모다 타원형이다。여름에서 가을에 걸쳐서 줄기끝에 흰빛 또는 담홍색의 빈약한 꽃이 핀다。뿌리는 길쭉한 생강모양으로 울퉁불퉁 거치른모양으로 잔뿌리가 많이 달린 덩어리를 이룬다。

4、**채종**

성숙한 송이에서 채종을 한다。

5、**파종**

씨앗을 채종즉시 파종한다。

6、**채취**

가을부터 캐낸다。

7、**조제**

캐낸 뿌리를 물로 씻고 잔 뿌리를 떨어버리고 햇별에 날린다。

8、**이용**

①창출은 방향성 건위제、해열제、발한제로 쓰인다。신장기능 저하로 인한 이뇨제、②백출은 지한제로 쓰인다。해외수출품。

〈註〉

1)잎이 나는 머리부분을 창출이라고 말하며 강원도산이 상품이다。

2)밑 뿌리가 생강같이 뭉친것을 백출이라고 말하며 청송、영양것등이 상품이다。

음양곽 = (淫羊藿)

과 명 : 매자나무과

속 명 : 삼지구엽초

약용부 : 줄기、잎、뿌리 등 전초

1、**기본**

우리나라 각지에 자생하는 다년생 풀로서 옛부터 강정제로 널리 쓰여왔다。

2、**생장적지**

산림속 반 그늘이 지는 곳이나 낮은 산 잡목 그늘 밑이 적지이다。

3、**특징**

잎의 저부는 심장형을 한 세잎이 하나로 된 것이 셋이 나와있기 때문에 삼지구엽초이라고 한다。꽃 모양은 닻모양으로 하고 있고 색깔은 백색 자색 황색 등을 나타내고 있다。꽃피는 시기는 4~5월경이다。

4、**채종**

야생한 모로부터 분주한다。

5、**파종**

포기 나누기 방법으로 번식한다。시기는 4~5월이 좋다。

6、**채취**

수확은 꽃이 필 무렵에 풀 전체를 뿌리 밑동에서부터 배우서 채취한다。

7、**조제**

베어 채집한 풀 전체를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말려서 제품으로 한다。

8、**이용**

소화를 도웁고 식욕을 항진시키는 고미제 신경강장제로 음위、신경쇠약、건망증、히스테리、해외수출품。

連載 韓方순례 >22<

〈續〉

3、**귀가 울리면 신장이 나빠진 것**

이명은 신장의 악화해서 온다。그러므로 이명은 내장기의 적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다。

신장을 차게 다루었다든가 식생활이 급변했을 때 자주 일어나는데 이를 방치하면 위험하다。

감기에 걸렸을 때도 이명현상이 오는데 이때도 역시 감기의 평면치료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신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치료를 서둘러야 한다。

간는귀가 먹었을 때는 이명 정도의 불편은 아무것도 아니다。잘 들린다는 것은 수(水)가 금(金)에서 생기기 때문인데、즉 금인 폐장이 튼튼하면 신장을 잘 조정하기 때문이다。폐장은 일신의 기를 관장하고 귀로 통해 주기 때문에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다。

이를 신장이 다음 조치를 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증상이 일어나면 폐장과 신장의 기능을 보강시켜 주어야 하는 것이다。

방사(房事)가 지나치게 과로 했을 때도 신장이 약해져 가는귀를 먹는 경우가 있다。물론 이때는 과도한 방사를 삼가고 신장을 보강해야 한다。

화를 잘 내는 사람중에 왼편 귀가 잘 안들리는 예가 일어난다。

이 경우 주의할 일은 왼편、오른편 귀 중 어느 귀가 잘 들리지 않는지 또는 양편 귀가 다같이 안 들리는지를 판별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때는 순환경로의 장애로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관계를 적어 보아야겠다。

①왼편 귀가 잘 안들릴 때는 족소양(足少陽)의 경락

②오른편 귀가 잘 안들릴 때는 족태양(足太陽)의 경락

③양편 귀가 어두울 때는 족양명(足陽明)의 경락과 각각 연관이 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족소양의 증상은 화를 잘 내는 사람중에 많고 족태양에 관련된 증상은 방사가 과도한 사람에게서、족양명의 결함에서 오는 증상은 편식이나 미식가에 많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족소양의 경락은 담과 간、족태양의 경락은 방광과 신장、족양명의 경락은 위(胃)와 비장에 각기 연결되어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의 치유에는 해당된 경락의 유통을 풀어 주는 것은 물론 또한 연관되는 장기를 필수적으로 보강해 주어야 한다。이에 대한 구체적인 적응증의 치료법은 다음에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祝) 發 展

社團法人 韓國生藥協會

◇강원도지부

지부장		송인겸
원주시	사무소장	황인구 (도공판장장겸직)
철원군	〃	박영임
원주군	〃	전승표
정선군	〃	최윤철 (공판장장겸직)
영월군	〃	심호섭
춘천시	〃	허 수
평창군	〃	함영완 (공판장장겸직)
인제군	〃	이종렬
명주군	〃	최이규
태백시	〃	우대기 (공판장장겸직)
홍천군	〃	박건훈
삼척시	〃	김시부
강릉시	〃	최정규
양구군	〃	강연백
삼척군	〃	김원복
양양군	〃	김환래 (공판장장겸직)
횡성군	〃	조대현
속초시	〃	임원길
삼척군	공판장장	최준수